

충북문화재단
CHUNGCHONGBUK-DO



충북문화재단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李快東 李堂展

전시기간 2025. 3. 12(수) ~ 17(월)

오픈식 2025. 3. 12(수) 오후 5시

전시장소 충.부.문.화.가.갤.러리 | 충북갤러리

인사아트센터 2층 인사동길 41-1

※ 작가연락처 : 010-3908-2287(운당 이쾌동)

이쾌동

Lee Kwaedong



약력

국어국문학사 취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단체전

1986~

동방연서회전 (서울)

태잠전 (서울)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전 (서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전 (전주)

국립 동아시아문화전당 개관전 2015 (광주)

여묵상우전 2017~ (서울, 제주, 삼척)

한중명가10인전 2025 (중국 소흥)

이쾌동

Lee Kwaedong

개인전

- 제1회 개인전 (청주예술관 1992)
- 제2회 개인전 (청주예술관 1996)
- 제3회 개인전 (동방화랑 2000. 서울 경운동)
- 제4회 개인전 (청주예술의전당 전관 2004)
- 제5회 개인전 (백악미술관 2006. 서울 관훈동)
- 제6회 개인전 (백악미술관 2011)
- 제7회 개인전 (백봉아트스페이스 2014)
- 제8회 청주공예관 기획 개인전 (2017)
- 제9회 개인전 (백악미술관 2023)
- 제10회 개인전 (충북갤러리 2025)

주요 수상경력

- 제1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우수상 수상 (1998)
- 청주예술상 수상 (2014)

자서 (自序)

Artist's note

李快東

‘새로운 봄을 꿈꾸면서[新春之夢]’라는 주제에, 봄[春]과 술[酒], 소요(逍遙)를 부제로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지난해 11월 말쯤이다. 작업을 할 때마다 반드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다. 거의 선문(選文)에 따른 즉흥적 심회(心懷)로 글씨를 쓰는 것이 나의 태도이었는데, 왜 그렇게 작정했는지 명료치 않으나 심미의식(審美意識)의 변화가 생겨서일까? 서예미학사상이 시대마다 다른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심미의식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이라 생각한다. 심미의식은 작가는 물론 감상자도 뚜렷하게 지니는 개성이다. 그렇지만 그 개념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심미의식의 변화에는 갈등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누구 말따나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 지난 것에 대한 그리움’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후자에 속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일까 평자(評者)들은 나를 서법에 관한한 매우 ‘보수’적이라고 핀잔을 준다.

어쨌든 ‘새로운 봄을 꿈꾸며’란 그야말로 내 작업에 새로운 봄을 강조하기 위한 다짐이었다. 그래서 내키는 대로 주저 없이 두보(杜甫)의 오언율시 《춘수(春水)》를 빌려 금문(金文)으로 봄꽃이 흐드러진 어느 언덕을 연상하며 썼다. 이어서 여흥으로 쓴 것들이 노자의 《불위이성(不爲而成)》, 《화광동진(和光同塵)》이다. 나로써 거의 파격(破格)인 셈이라 하겠다. 어(語)에 ‘일흔쯤이면 내키는 대로 해도 괜찮다[從心所欲不踰矩]’고 했지만 언감생심, 몇 번 망설이다 출전(出展)키로 했다. 이어 마침 올 4월 중국 소흥(紹興)에서 ‘한중십인전’ 작품 요청의 주제가 공교롭게도 ‘술’이었다. 술에 관한 한 못사람들 입줄에 오르내리는 나인지라, 몇 날을 고민하다 선문(選文)한 것이 서하(西河)의 《국순전(麴醇傳)》이다. 서하에겐 마음에 진 빛이 있다. 그의 운(韻)을 빌려 쓴 것이 《자술(自述)》이다. 이것들은 지금 것 내가 추구하던 작업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다. 내 댄엔 이렇게 넘나든 작업에 변화가 진화(進化)를 위한 몸부림이었을까? 모를 일이다.



봄꽃들의 물결 [桃花浪]

전(篆)

180x450cm

화선지에 먹

2025

高麗朴公浩
詩鏡心山詩
喻自者之自
畫像心極西
漢魯孝王刻
石筆一志
甲辰又玄前日
書于虛白丈
室步蓬萊案

李鴻章

거울 [鏡]

예 (隷)
135x70cm
화선지에 먹
2024

君不見陶朱公功成便退一扁舟五湖烟雨
優游又見蘇東坡一麾遠滿嶺海間何處
作我卧黃梅當時茶廚雪子落空有聲石
留千秋聲名在身外事不以醉倒百
無恙樽中但得酒不乾些衣不必千金裘
但得小精鹽割鮮不必推肥牛醉鄉長作飲中
仙不願枯槁忍飢寒瀛洲

三蘇先生祖飲酒歌
甲辰冬月後音性重



음주가 (飲酒歌)

행(行)

135x70cm

화선지에 먹

2024

無礙



화광동진(和光同塵)

전예혼용(篆隸混用)

95x85cm

화선지에 먹

2025

이바니웃드라나水구경가자스라踏靑이란
 오름하고浴汗란來自한새아츠에採하고
 나조히釣水한새고고려가이송은황남으
 로밧타고고대나모것거수고고려이라
 和風이건는스려綠水은건나오니
 清香은잔에지고落紅은우대새진다
 樽中이부엌건고려아고외려라小童
 아히고려酒家에송은송은어영은
 막대진고아히고송은고微吟緩步하
 야시냈.의호자아자明沙조하를에
 잔시어부어고고靑靑은(고어보
 니더우니)梅花(고대)武陵이간
 다저미이건고

不受軒 3 莫仁先生 賞春曲 吟 乙 亥 年 春
 甲辰 月 日 乙 亥 年 春 月 日 乙 亥 年 春 月 日

상춘곡 (賞春曲)

국한혼용

138x133cm

화선지에 먹

2024

초		바		개		러	리
	ㅏ		ㅓ		ㅓ		ㅣ
	ㅇ		ㄱ		ㄹ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2층